

## 0902(금) 에스겔 29-32장 사방 무덤의 교훈

이집트는 오랜 시간 <강대국>의 대명사였습니다.  
이스라엘과 떼어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.  
(20:7, 출1:7,3:7,6:5,16:3사19-20, 계11:8)

이집트는 다시금 전성기를 맞지 못할 것입니다(29:11-16).  
하나님께서 맡기신 <강대국>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입니다.  
이집트는 스스로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난폭하게 굴었습니다.  
도움을 청하는 나라들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.  
동맹국을 배신하여 치명적 상처를 입혔습니다.  
(29:3,6-7,9, 32:2)

교만하며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러 온 이집트는(32:2)  
치명적인 칼,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입니다(30:4,5,6,11,17).  
이집트의 경제, 정치, 종교, 제도 등이 전멸할 것이며,  
그들의 교만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한 자들과 동맹국 또한  
이집트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(30:4-9,13-19, 32:3-14).

이집트를 능가하던 앗수르도 교만으로 망했습니다(31:2-3,10,14, 32:22-23).  
군사력으로 강성하던 엘람, 메섹과 두발의 병기 가진 자들(32:24-28),  
강성했던 에돔과 시돈도(32:29-30) 모두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.  
열방과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.  
(29:19, 30:10,24-25, 31:11, 32:11-12)

아무리 강한 자도 결국엔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(32:17-32).  
세상에는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.

**나는 세상의 유한함을 깨닫습니까?**

- ❶ 내게 주신 힘, 지위, 물질에 기한이 있음을 깨닫습니까?
- ❷ 유한한 권력과 소유 너머, 영원한 주권자를 볼 수 있습니까?
- ❸ 불의한 권력, 악인에 동조한 대가가 있을 것을 깨닫습니까?

**시작기도 + 통독 에스겔 29-32장**